

특집

2007년도 협회주최 행사참가기

이번 호 <특집>에서는 2007년에 우리협회가 공공도서관 사서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독서대학' 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에 대해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행사 참가기를 실는다.



특 집

2007년도 협회주최 행사 참가기

2007년 독서대학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적 독서치료”

우리협회는 독서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부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질적으로 차별화된 독서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독서대학을 개최하여 이들을 독서교육의 선구자가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독서대학”을 주최하여 왔다.

2007년도에는 독서치료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을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과 대전한밭도서관에서 일반인반과 사서반으로 나누어 10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각 10주간 진행하였다. 강좌내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일정

회차	강좌내용	
	일반인	사서반
1	오리엔테이션 및 정신보건 현황과 독서치료	
2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가?	
3	성인아이 : 역기능 가정	주부를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4	자아실현	
5	남녀/부부관계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6	부모/자녀관계	
7	친지관계/가부장사회	대학생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8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9	책은 치유의 힘이 있는가?(신성희 사례)	
10	마무리 : 성숙으로 가는 길 및 평가	

▶ 강사진

- 김정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수경(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김순화(울산중부도서관 사서)
- 조윤희(부산구덕도서관 사서)
- 주상수(서울남산도서관 사서)
- 황금숙(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 김경숙(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 박현영(양산도서관 사서)
- 신주영(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 프로그램

강좌명	독서대학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치료」
참여대상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싶고, 책임기를 통한 아픈 마음의 치유가 무엇이며, 성숙을 위한 책임기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은 사람.
강좌목적	<p>‘독서치료(bibliotherapy)’란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개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이해의 증진은 물론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이 강좌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심리적 문제와 대인 관계를 성찰하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강좌를 하는 동안 자기표현 기술 향상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아성장을 도모한다.</p> <p>또한 여러 가지 상황별 치유서를 읽음으로써 ‘상처입은 치유자’ 체험과 더불어 여러 가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진행자의 자질을 기른다.</p>
강의방식	<p>기존 강사의 일방적인 전달식의 강의를 탈피하여, 모든 수강자가 주어진 책을 1주일에 1권씩 읽고(치유적 글읽기), 자신만의 방식(일기, 편지, 수필, 논설, 설형 등)으로 읽은 소감을 정리(자신의 성장기록이라 할 수 있다: 치유적 글쓰기)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치유적 말하기)하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인 강의이다. 강의를 이끄는 인도자와 강의를 수강하는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강자가 제시된 매체(책)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읽고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독서치료를 몸소 ‘체험’하는데 중점을 둔다.</p> <p>▶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치유적 책읽기(혼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2. 다음으로, 치유적 글쓰기(혼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나’에게 와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다. - 위의 내용을 메모 형식 또는 문장으로 솔직하게 적는다. 3. 마지막으로, 치유적 말하기(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해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 다른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한다.

▶ 세부내용

회차	구분	내용
1	상황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 자기소개
2	상황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목표	마음의 상처와 장애의 원인이 가정, 학교, 사회에 있음을 인식시키기
3	상황	과거의 나 - 역기능 가정
	목표	내재과거아의 발견과 부모에게서 받은 심리적 유산 확인
4	상황	W. 휴 미실다인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 이종범 · 이석규 옮김, 가톨릭교리신학원, 2006(개정판),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매체	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5.
5	상황	자아실현
	목표	주부직으로서 오는 마음상함 치유하기
6	상황	진시노다 볼린, 우리들 속에 있는 여신들, 또하나의문화, 1992, 마사 그래드,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김연수 옮김, 뜨인돌, 2002, 기타 서사자료(엄마의 인생)
	매체	
7	상황	자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자녀에 대한 집착의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해 치유하기
8	상황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홍민 옮김, 양철북, 2003, 기타 서사자료 : 내가 만일 다시...
	매체	
9	상황	부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남 · 녀간의 근원적 성격차이와 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이혼을 고려할 때 오는 마음 상함 치유하기.
10	상황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역, 친구미디어, 1999,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역, 이프, 2001, 기타 서사자료 : 저 오늘 꽃 받았어요
	매체	
11	상황	친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친지간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해 치유하기
12	상황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매체	
13	상황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목표	일상에서 오는 문제(경제적, 친구, 이웃...)에 대해 치유하기
14	상황	리처드 칼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영문 역, 창작시대, 1998, 베르벨 바르데츠키,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역, 궁리, 2002, 법정, 무소유.
	매체	
15	상황	신성희 사례
	목표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16	상황	이영애 외,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모임, 조이선교회, 2007, 이영애,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베다니출판사, 2005.10
	매체	
17	상황	아직도 가야 할 길 / 평가
	목표	삶이 고통임을 인식하기, 독서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소개 및 평가
18	상황	스캇 펙, 아직도 가야할 길, 신승철 · 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7, 류시화 엮음,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미래, 2005.
	매체	

* 이 프로그램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일반인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독서대학 참가자 참가기 : 「체험적 독서치료 참여자로서 나를 진단한다」

〈참가자 1〉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은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지만 독서 치료는 생소했다.
 처음 시간부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라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도 없고 수다는 떨어 봤지만
 여러사람들 앞에서 발표 식으로 하는것에는 익숙치 않아서 떨리기도 하고..
 어찌 내 차례가 넘어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책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에 힘을 얻어
 내 마음도 입도 열린듯 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출발을 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주변 사람들하고의 문제 등.
 남의 탓보다도 내 안의 문제로 부터 출발하다보니 이해가 되고 평안도 찾아 왔다.
 이번 독서 대학을 통해서 느끼고 얻은게 너무 많다.
 아이들을 훨씬 편안하게 대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아졌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 해야 되는지..
 주변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독서모임을 통해서 공부도 계속 하면서 내가 힘들때 책을 통해 위로받고 주변사람들이 힘들때
 힘이 되주고도 싶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신 한국도서관협회 강사진과 도서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가자 2〉

솔직해진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 힘들게 살아온 나의 과거를 말한다는 것도 쉬우면서
 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는 사실이 참 마음 흐뭇하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피리를 틀고 있었던 지난날의 나의 과거사들, 마음의 짐을 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사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과거의 사정들을 또 현재의 어려운 여건들을 탓하며 열등의식과 불만에 찬 나의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 독서치료대학을 마치면서 어제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더디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내가 되고자 한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회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지 못한 아쉬움이 참으로 진한 안
 타까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속에서도 내 자신 스스로 부쩍 성숙해진 듯한 뿌듯함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많은것을 얻고 깨달았던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가자 3〉

수료일정 10일을 가득 채우지 못한 미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참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 기르기, 저에게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어렵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자녀사이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동그란 언어를 쓰고, 자녀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노력하는 단계라서 그래도 어렵더군요. 많은 부분에 수긍하고, 내 아이를 위한 것이기에 내가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엄마인 자신이 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책을 접했음에도, 좋아서 주위의 언니들에게 권했으면서도 개선된 행동들이 많지 않아서 속상해 했어요.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받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와 아이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동안 잔소리도 하고, 화도 냈었는데 방법에 아마추어였었다고요. 기다림, 노력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질 때 반드시 프로가 된다고요.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데, 즐겁게 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났던 분들,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주 빛고을에서 ==

〈참가자 4〉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주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독서지도사 과정보다는 치료사 과정이 굉장히 광범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안다는 것이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중략〉…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것은 제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편견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짧다면 짧은 수업을 통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책을 접하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커졌으리라 믿어봅니다.

강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무거운 얘기를 듣고 가시느라 다시 오시는 발걸음도 가볍진 않았을 텐데 웃으면서 수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은 OX퀴즈가 아닌데 너무 옳고 그름의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제 인생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5〉

「바위는 단단하고

물은 촉촉하고

때론 통통한 주홍빛 딸기는 서

원래 그렇게 있는 거니까

생긴 바 그대로 행동하고 존재해」 -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중에서

“누군가를 고치려 하는 것은 태양계를 바꾸려 하는 것과 같다”

- 사랑과 우정의 신비 중 -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우침이 머리를 때렸다. 내 잣대로 함부로 나 아닌 타인을 재단하려 했던 오만함에 대한 영감을 강하게 내려준 ‘독서 대학’이었다. 그 이후 내 주변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참으로 넉넉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 6〉

처음에는 ‘독서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신기해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이라는 제목이 주를 이루는 수업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기도 하고 점점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나 자신을 자신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의 본 모습을 끄집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나 자신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언제나 꾀꾀 숨겨 두었던 내 진짜 모습이 추하던 슬프던 괴롭던 바라볼 수 있게 힘을 주셨던 선생님과 내 일이 아닌데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주위 분들에게 감사하기만 하다. 특히 큰 아이와 잦은 마찰로 지쳐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천행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큰 아이와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리란 믿음이 확고하게 선다.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 보고 싶다.

Special

2007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

우리협회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평생학습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체득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의 하나인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문화교육능력을 확장시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서관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이번 연수에는 30여명의 교사 및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개요

연수명	연수내용	비고	도서관명
비폭력대화 Change	Change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증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게 상호 존중과 이해심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자 함.	강사 : 윤서옥 담당 : 윤영민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신문활용교육 NIE	NIE 교육을 통해 신문과 친숙해져서 다양한 신문의 기능과 활용법을 익힘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음.	강사 : 김은실 담당 : 윤영민	
인문학교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 우리는 진정한 공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교사들에게 던지는 공부에 관한 새로운 화두!	강사 : 고미숙 담당 : 배지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책과 소통하기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단순히 읽는 책에서 벗어나 놀며 즐기는 책임기를 경험함으로써 교육현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진행 : 극단 사다리 와 어린이실 사서	
마인드 맵	학습의 기본인 이해력, 핵심파악능력,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고, 또한 공부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목표, 실천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강사 : 박용민	서울정독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학교도서관이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안내자의 역할과 교과학습, 특별활동, 행사교육 등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경험을 심화하고자 함. 학교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운영프로그램의 실제 등을 안내함.	강사 : 이성애	송곡고등학교 도서관
독서치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고 교직원들의 자아성장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함.	강사 : 황금숙 담당 : 조선희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교사자율연수 참가기 1〉

지난해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연수를 참 많이 다녔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 체험 자율연수” 였는데 오후 시간을 다 비우고 나와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강의내용도 좋았고 장소를 바꿔 가며 다른 도서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새로 생긴 도서관은 거의 구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연수가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강의가 다 좋았지만, 몇몇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나름대로 학생들과 같이 해보았는데 반응이 참 좋았다. 먼저 “신문활용교육 NE” 시간은 CA시간에 학생들과 했던 수업이 잘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도서관” 하면 책만 읽고 독후감쓰기가 연상이 되는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 버린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문을 가져오게 한 다음, 재미난 기사를 찾으라고 하고 그 기사를 오려서, 다른 노트에 붙여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려 놓고 주제를 찾기를 했다. 그리고 주제를 요약하되, 한줄 두 줄 나아가서는 몇 십자 이내로 요약하게 하였다. 또 과일과 관련된 기사는 그 과일을 실제로 사다놓고 먹으면서 진행을 하였고, 그 기사의 후편을 그림으로 그리고 말 풍선으로 표현을 하게 하였다니 예상대로 학생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며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또 다른 강의는 “마인드맵”이었는데, 우선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고, 주어진 그 짧은 시간동안에 내용을 익히려니 더 힘들었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이미 굳어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니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와서 무용부, 음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시험이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해 우리 고유의 명절에 대해 이 수업을 실시해보았다. 학생들에게는 마인드맵이 전혀 낯설지 않았으며 “단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 삼푸를 선전하는 문구를 만들기도 하고 색깔과 함께 그림도 멋지게 그려 넣었다. 또 신윤복의 화풍에 대해서도 설명을 달아놓고 자신들이 평소 하던 놀이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명절날 하루 일상과 집안의 분위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초등학교 때 마인드맵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가지를 이어 나갔고, 과목에 따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독서치료” 강의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의 정신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되어 서점을 더 열심히 찾게 되었으며, 예전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들도 먼저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안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연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사자율연수 참가기 2〉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요일 오후마다 5회에 걸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견학하면서 알찬 연수시간들을 가졌다. 집에 갈 때면 어스름해져서 집식구들이 생각났지만 머리 속에는 그날 배운 것들이 가득 차서 풍요로웠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궁리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결강이 생기면 학년별로 2시간씩 도서관에서 독서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문활용교육' 연수에서는 신문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에 다시 한번 공감이 갔다. 하루에 300명 남짓의 전문직 기자들이 쓴 글들은 논리교과서 그 자체여서 좋은 글감이며, 토론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종합적 사고와 판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합논술로 이어진다는 것. 생생한 현실의 자료를 교과서와 접목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찾아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학습과 의욕적인 지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등.

요즘 학생들의 생활은 다 알다시피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을 따라잡기에도 힘들다. 더구나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인터넷게임, TV 등은 공부에,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훌륭한 안식처이며 도피처 노릇을 해주고 있어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간다. 스스로 하는 공부, 꼭 알고 싶어서, 할수록 재미가 나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주어진 학습을 해내고 성적을 올려야 하는 공부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이다. 신문의 글은 우선 짧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안 된 학생들도 칼럼 몇 개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로 연결되어 훌륭한 독서의 첫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재미가 붙어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는데 책 읽기의 첫 단추로 아주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흥미 있고도 유익하며 세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관심하던 매체인 신문에 눈길을 돌리고 통합논술과의 관련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문학 교실' 연수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론의 제시라기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명제를 다루었다. 도서관이 일터인 우리들에게도 책의 역할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든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시장의 정글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5-10%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사회를 만들고 있다. 소수에 들어가야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갖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소외되어 10대-20대들은 전전공공하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인생을 통찰해가는 성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 충동적으로 폭력과 일탈을 일삼고 무책임한 삶을 살기 쉬워진다.

이렇게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진정한 '공부'의 필요성이 대두된 듯하다. 진정한 공부는 자기 존재의 궁극적 해방이며 입시가 끝나는 즉시로 공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 대학 때부터 진짜 공부를 본격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자식은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다.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매달리지 마라. 공부는 성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식에게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리저리 학원에 데리고 다니고 공부하라고 어르고 야단치면서 점수 한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따르게 하려는 충고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

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앞의 성적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곤 한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나라, 성인들이 도서관을 메우고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는 틀림없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처럼 메마르지 않고 덜 경쟁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컨트롤 해가며 스스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아이들에게 백 마디 공부하라는 뉘달보다는 한번 공부하는 모습, 도서관에 책방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인들이 평생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들이 물질적으로 인적네트워크로 잘 뒷받침되어서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일조하면 좋겠다. 그것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 같다. 학교도서관에서도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책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이나 영화, 그림책 등 손쉬운 매체를 통해 책과 친분을 쌓아가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10대 때 학교도서관 경험이 평생을 가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독서치료’ 연수는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더 열심히 들었다. 좋은 자료도 많이 주시고 집에 갈 때는 지하철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시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학교에서 하는 독서치료는 성장단계에 따른 예방 차원이나, 누구나 겪게 되는 상한 감정들의 위로이지, 병원에서의 진료는 아니라고 한다. 책은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처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만 잘 선정해주면 스스로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영혼의 명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질주의, 성 모랄의 붕괴, 폭력, 과도한 교육경쟁 등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서문제와 반항, 난폭행위 등의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25.8%이고 초·중·고생의 35.8%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갈 곳 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없어 외롭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책은 정말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 아이의 수준과 적성에 꼭 맞는 책만 선정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만 잘 만난다면.

독서치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스승과 제자가 마음만 서로 터놓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확실히 치유가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빛나가는 인생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던 편견과 무지를 깨달으면서 인간적인 성숙을 이룰 수도 있다.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이므로 독서지도와 함께 독서치료도 사서교사의 또 다른 보람된 분야라고 생각한다. 성인 독서치료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자문을 구해서 10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도서관이 그냥 책을 빌려다보는 곳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고 자아 성장을 돕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솔직히 연수 받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학교생활로 돌아오면 예전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만 그래도 또 연수를 받으러 간다.

미미하지만 조금씩의 자극이 그만큼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정은경(배화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특 집

2007년도 협회주최 행사 참가기

2007년 독서대학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적 독서치료”

우리협회는 독서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부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질적으로 차별화된 독서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독서대학을 개최하여 이들을 독서교육의 선구자가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독서대학”을 주최하여 왔다.

2007년도에는 독서치료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을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과 대전한밭도서관에서 일반인반과 사서반으로 나누어 10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각 10주간 진행하였다. 강좌내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일정

회차	강좌내용	
	일반인	사서반
1	오리엔테이션 및 정신보건 현황과 독서치료	
2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가?	
3	성인아이 : 역기능 가정	주부를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4	자아실현	
5	남녀/부부관계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6	부모/자녀관계	
7	친지관계/가부장사회	대학생 위한 상황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8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9	책은 치유의 힘이 있는가?(신성희 사례)	
10	마무리 : 성숙으로 가는 길 및 평가	

▶ 강사진

- 김정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수경(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김순화(울산중부도서관 사서)
- 조윤희(부산구덕도서관 사서)
- 주상수(서울남산도서관 사서)
- 황금숙(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 김경숙(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 박현영(양산도서관 사서)
- 신주영(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 프로그램

강좌명	독서대학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치료」
참여대상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싶고, 책임기를 통한 아픈 마음의 치유가 무엇이며, 성숙을 위한 책임기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은 사람.
강좌목적	<p>‘독서치료(bibliotherapy)’란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개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이해의 증진은 물론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이 강좌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심리적 문제와 대인 관계를 성찰하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강좌를 하는 동안 자기표현 기술 향상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아성장을 도모한다.</p> <p>또한 여러 가지 상황별 치유서를 읽음으로써 ‘상처입은 치유자’ 체험과 더불어 여러 가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진행자의 자질을 기른다.</p>
강의방식	<p>기존 강사의 일방적인 전달식의 강의를 탈피하여, 모든 수강자가 주어진 책을 1주일에 1권씩 읽고(치유적 글읽기), 자신만의 방식(일기, 편지, 수필, 논설, 설형 등)으로 읽은 소감을 정리(자신의 성장기록이라 할 수 있다: 치유적 글쓰기)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치유적 말하기)하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인 강의이다. 강의를 이끄는 인도자와 강의를 수강하는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강자가 제시된 매체(책)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읽고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독서치료를 몸소 ‘체험’하는데 중점을 둔다.</p> <p>▶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치유적 책읽기(혼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2. 다음으로, 치유적 글쓰기(혼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나’에게 와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다. - 위의 내용을 메모 형식 또는 문장으로 솔직하게 적는다. 3. 마지막으로, 치유적 말하기(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해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 다른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한다.

▶ 세부내용

회차	구분	내용
1	상황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 자기소개
2	상황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목표	마음의 상처와 장애의 원인이 가정, 학교, 사회에 있음을 인식시키기
3	상황	과거의 나 - 역기능 가정
	목표	내재과거아의 발견과 부모에게서 받은 심리적 유산 확인
4	상황	W. 휴 미실다인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 이종범 · 이석규 옮김, 가톨릭교리신학원, 2006(개정판),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5,
	매체	이영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 홍성사, 2000, 이훈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네요, 이야기, 2001,
5	상황	자아실현
	목표	주부직으로서 오는 마음상함 치유하기
6	상황	자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자녀에 대한 집착의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해 치유하기
7	상황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홍민 옮김, 양철북, 2003, 기타 서사자료 : 내가 만일 다시...
	매체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홍민 옮김, 양철북, 2003, 기타 서사자료 : 내가 만일 다시...
8	상황	부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남 · 녀간의 근원적 성격차이와 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이혼을 고려할 때 오는 마음 상함 치유하기,
9	상황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역, 친구미디어, 1999,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역, 이프, 2001, 기타 서사자료 : 저 오늘 꽃 받았어요
	매체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역, 친구미디어, 1999,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역, 이프, 2001, 기타 서사자료 : 저 오늘 꽃 받았어요
10	상황	친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목표	친지간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해 치유하기
11	상황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매체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12	상황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목표	일상에서 오는 문제(경제적, 친구, 이웃...)에 대해 치유하기
13	상황	리처드 칼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영문 역, 창작시대, 1998, 베르벨 바르데츠키,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역, 궁리, 2002, 법정, 무소유,
	매체	리처드 칼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영문 역, 창작시대, 1998, 베르벨 바르데츠키,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역, 궁리, 2002, 법정, 무소유,
14	상황	신성희 사례
	목표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15	상황	이영애 외,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모임, 조이선교회, 2007, 이영애,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베다니출판사, 2005.10
	매체	이영애 외,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모임, 조이선교회, 2007, 이영애,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베다니출판사, 2005.10
16	상황	아직도 가야 할 길 / 평가
	목표	삶이 고통임을 인식하기 독서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소개 및 평가
17	상황	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 · 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7, 류시화 엮음,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미래, 2005,
	매체	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 · 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7, 류시화 엮음,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미래, 2005,

* 이 프로그램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일반인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독서대학 참가자 참가기 : 「체험적 독서치료 참여자로서 나를 진단한다」

〈참가자 1〉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은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지만 독서 치료는 생소했다.
 처음 시간부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라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도 없고 수다는 떨어 봤지만
 여러사람들 앞에서 발표 식으로 하는것에는 익숙치 않아서 떨리기도 하고..
 어찌 내 차례가 넘어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책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에 힘을 얻어
 내 마음도 입도 열린듯 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출발을 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주변 사람들하고의 문제 등.
 남의 탓보다도 내 안의 문제로 부터 출발하다보니 이해가 되고 평안도 찾아 왔다.
 이번 독서 대학을 통해서 느끼고 얻은게 너무 많다.
 아이들을 훨씬 편안하게 대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아졌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 해야 되는지..
 주변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독서모임을 통해서 공부도 계속 하면서 내가 힘들때 책을 통해 위로받고 주변사람들이 힘들때
 힘이 되주고도 싶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신 한국도서관협회 강사진과 도서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가자 2〉

솔직해진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 힘들게 살아온 나의 과거를 말한다는 것도 쉬우면서
 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는 사실이 참 마음 흐뭇하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피리를 틀고 있었던 지난날의 나의 과거사들, 마음의 짐을 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사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과거의 사정들을 또 현재의 어려운 여건들을 탓하며 열등의식과 불만에 찬 나의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 독서치료대학을 마치면서 어제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더디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내가 되고자 한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회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지 못한 아쉬움이 참으로 진한 안
 타까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속에서도 내 자신 스스로 부쩍 성숙해진 듯한 뿌듯함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많은것을 얻고 깨달았던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가자 3〉

수료일정 10일을 가득 채우지 못한 미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참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 기르기. 저에게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어렵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자녀사이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동그란 언어를 쓰고, 자녀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노력하는 단계라서 그래도 어렵더군요. 많은 부분에 수긍하고, 내 아이를 위한 것이기에 내가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엄마인 자신이 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책을 접했음에도, 좋아서 주위의 언니들에게 권했으면서도 개선된 행동들이 많지 않아서 속상해 했어요.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받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와 아이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동안 잔소리도 하고, 화도 냈었는데 방법에 아마추어였었다고요. 기다림, 노력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질 때 반드시 프로가 된다고요.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데, 즐겁게 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났던 분들,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주 빛고을에서 ==

〈참가자 4〉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주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독서지도사 과정보다는 치료사 과정이 굉장히 광범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안다는 것이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중략〉…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것은 제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편견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짧다면 짧은 수업을 통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책을 접하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커졌으리라 믿어봅니다.

강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무거운 얘기를 듣고 가시느라 다시 오시는 발걸음도 가볍진 않았을 텐데 웃으면서 수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은 OX퀴즈가 아닌데 너무 옳고 그름의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제 인생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5〉

「바위는 단단하고

물은 촉촉하고

때론 통통한 주홍빛 딸기는 서

원래 그렇게 있는 거니까

생긴 바 그대로 행동하고 존재해」 -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중에서

“누군가를 고치려 하는 것은 태양계를 바꾸려 하는 것과 같다”

- 사랑과 우정의 신비 중 -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우침이 머리를 때렸다. 내 잣대로 함부로 나 아닌 타인을 재단하려 했던 오만함에 대한 영감을 강하게 내려준 ‘독서 대학’이었다. 그 이후 내 주변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참으로 넉넉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 6〉

처음에는 ‘독서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신기해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이라는 제목이 주를 이루는 수업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기도 하고 점점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나 자신을 자신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의 본 모습을 끄집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나 자신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언제나 꾀꾀 숨겨 두었던 내 진짜 모습이 추하던 슬프던 괴롭던 바라볼 수 있게 힘을 주셨던 선생님과 내 일이 아닌데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주위 분들에게 감사하기만 하다. 특히 큰 아이와 잦은 마찰로 지쳐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천행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큰 아이와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리란 믿음이 확고하게 선다.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 보고 싶다.

Special

2007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

우리협회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평생학습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체득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의 하나인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문화교육능력을 확장시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서관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이번 연수에는 30여명의 교사 및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개요

연수명	연수내용	비고	도서관명
비폭력대화 Change	Change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증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게 상호 존중과 이해심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자 함.	강사 : 윤서옥 담당 : 윤영민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신문활용교육 NIE	NIE 교육을 통해 신문과 친숙해져서 다양한 신문의 기능과 활용법을 익힘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음.	강사 : 김은실 담당 : 윤영민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인문학교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 우리는 진정한 공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교사들에게 던지는 공부에 관한 새로운 화두!	강사 : 고미숙 담당 : 배지혜	서울정독도서관
책과 소통하기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단순히 읽는 책에서 벗어나 놀며 즐기는 책임기를 경험함으로써 교육현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진행 : 극단 사다리 와 어린이실 사서	서울정독도서관
마인드 맵	학습의 기본인 이해력, 핵심파악능력,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고, 또한 공부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목표, 실천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강사 : 박용민	송곡고등학교 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학교도서관이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안내자의 역할과 교과학습, 특별활동, 행사교육 등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경험을 심화하고자 함. 학교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운영프로그램의 실제 등을 안내함.	강사 : 이성애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독서치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고 교직원들의 자아성장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함.	강사 : 황금숙 담당 : 조설희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교사자율연수 참가기 1〉

지난해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연수를 참 많이 다녔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 체험 자율연수” 였는데 오후 시간을 다 비우고 나와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강의내용도 좋았고 장소를 바꿔 가며 다른 도서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새로 생긴 도서관은 거의 구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연수가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강의가 다 좋았지만, 몇몇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나름대로 학생들과 같이 해보았는데 반응이 참 좋았다. 먼저 “신문활용교육 NE” 시간은 CA시간에 학생들과 했던 수업이 잘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도서관” 하면 책만 읽고 독후감쓰기가 연상이 되는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 버린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문을 가져오게 한 다음, 재미난 기사를 찾으라고 하고 그 기사를 오려서, 다른 노트에 붙여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려 놓고 주제를 찾기를 했다. 그리고 주제를 요약하되, 한줄 두 줄 나아가서는 몇 십자 이내로 요약하게 하였다. 또 과일과 관련된 기사는 그 과일을 실제로 사다놓고 먹으면서 진행을 하였고, 그 기사의 후편을 그림으로 그리고 말 풍선으로 표현을 하게 하였다니 예상대로 학생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며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또 다른 강의는 “마인드맵”이었는데, 우선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고, 주어진 그 짧은 시간동안에 내용을 익히려니 더 힘들었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이미 굳어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니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와서 무용부, 음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시험이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해 우리 고유의 명절에 대해 이 수업을 실시해보았다. 학생들에게는 마인드맵이 전혀 낯설지 않았으며 “단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 삼푸를 선전하는 문구를 만들기도 하고 색깔과 함께 그림도 멋지게 그려 넣었다. 또 신윤복의 화풍에 대해서도 설명을 달아놓고 자신들이 평소 하던 놀이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명절날 하루 일상과 집안의 분위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초등학교 때 마인드맵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가지를 이어 나갔고, 과목에 따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독서치료” 강의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의 정신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되어 서점을 더 열심히 찾게 되었으며, 예전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들도 먼저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안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연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사자율연수 참가기 2〉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요일 오후마다 5회에 걸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견학하면서 알찬 연수시간들을 가졌다. 집에 갈 때면 어스름해져서 집식구들이 생각났지만 머리 속에는 그날 배운 것들이 가득 차서 풍요로웠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궁리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결강이 생기면 학년별로 2시간씩 도서관에서 독서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문활용교육' 연수에서는 신문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에 다시 한번 공감이 갔다. 하루에 300명 남짓의 전문직 기자들이 쓴 글들은 논리교과서 그 자체여서 좋은 글감이며, 토론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종합적 사고와 판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합논술로 이어진다는 것. 생생한 현실의 자료를 교과서와 접목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찾아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학습과 의욕적인 지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등.

요즘 학생들의 생활은 다 알다시피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을 따라잡기에도 힘들다. 더구나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인터넷게임, TV 등은 공부에,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훌륭한 안식처이며 도피처 노릇을 해주고 있어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간다. 스스로 하는 공부, 꼭 알고 싶어서, 할수록 재미가 나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주어진 학습을 해내고 성적을 올려야 하는 공부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이다. 신문의 글은 우선 짧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안 된 학생들도 칼럼 몇 개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로 연결되어 훌륭한 독서의 첫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재미가 붙어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는데 책 읽기의 첫 단추로 아주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흥미 있고도 유익하며 세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관심하던 매체인 신문에 눈길을 돌리고 통합논술과의 관련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문학 교실' 연수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론의 제시라기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명제를 다루었다. 도서관이 일터인 우리들에게도 책의 역할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든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시장의 정글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5-10%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사회를 만들고 있다. 소수에 들어가야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갖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소외되어 10대-20대들은 전전공공하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인생을 통찰해가는 성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 충동적으로 폭력과 일탈을 일삼고 무책임한 삶을 살기 쉬워진다.

이렇게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진정한 '공부'의 필요성이 대두된 듯하다. 진정한 공부는 자기 존재의 궁극적 해방이며 입시가 끝나는 즉시로 공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 대학 때부터 진짜 공부를 본격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자식은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다.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매달리지 마라. 공부는 성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식에게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리저리 학원에 데리고 다니고 공부하라고 어르고 야단치면서 점수 한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따르게 하라는 충고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

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앞의 성적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곤 한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나라, 성인들이 도서관을 메우고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는 틀림없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처럼 메마르지 않고 덜 경쟁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컨트롤 해가며 스스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아이들에게 백 마디 공부하라는 다투는 것보다는 한번 공부하는 모습, 도서관에 책방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인들이 평생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들이 물질적으로 인적네트워크로 잘 뒷받침되어서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일조하면 좋겠다. 그것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 같다. 학교도서관에서도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책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이나 영화, 그림책 등 손쉬운 매체를 통해 책과 친분을 쌓아가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10대 때 학교도서관 경험이 평생을 가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독서치료’ 연수는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더 열심히 들었다. 좋은 자료도 많이 주시고 집에 갈 때는 지하철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시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학교에서 하는 독서치료는 성장단계에 따른 예방 차원이나, 누구나 겪게 되는 상한 감정들의 위로이지, 병원에서의 진료는 아니라고 한다. 책은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처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만 잘 선정해주면 스스로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영혼의 명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질주의, 성 모랄의 붕괴, 폭력, 과도한 교육경쟁 등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서문제와 반항, 난폭행위 등의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25.8%이고 초·중·고생의 35.8%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갈 곳 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없어 외롭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책은 정말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 아이의 수준과 적성에 꼭 맞는 책만 선정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만 잘 만난다면.

독서치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스승과 제자가 마음만 서로 터놓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확실히 치유가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빛나는 인생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던 편견과 무지를 깨달으면서 인간적인 성숙을 이룰 수도 있다.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이므로 독서지도와 함께 독서치료도 사서교사의 또 다른 보람된 분야라고 생각한다. 성인 독서치료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자문을 구해서 10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도서관이 그냥 책을 빌려다보는 곳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고 자아 성장을 돕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솔직히 연수 받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학교생활로 돌아오면 예전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만 그래도 또 연수를 받으러 간다.

미미하지만 조금씩의 자극이 그만큼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정은경(배화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